

시론



강동완  
前 조선대학교 총장

교육혁명 일이관지(一以貫之)의 정신으로 보다

도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10점 척도 중 6.6 점으로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27개 국가의 평균은 7.7에 비하면 낮다.

이것은 물질 지향적 교육에서 삶의 행복을 디자인하는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코로나 비대면 사회로 진입되면서 시험문제 정답찾기 중심식 교육은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실제로 단 한번의 수능시험으로 진행되는 서열적 대학입시는 여전히 사교육 시장을 급성장시키고 교육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

가장 염려되는 것은 교육이 행복한 삶을 성장시키는 과정으로서가 아니라 미래의 욕망을 위해 현재를 희생시키는 삶의 고통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청소년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에게도 고통이 아닌 지금(Now) 여기(Here)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의 여정이라는 교육이 필요

하다. 교육혁명의 본질은, 학교는 친구들과 함께 성장하면서 즐거움을 나누는 행복한 공간이고, 행복한 삶의 지혜를 배우는 공간이며, 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은 공동체의 건강과 행복과 관계되어 있다는 인문생태학적 공간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행복과 건강이라는 열매를 주렁주렁 열리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과 근본을 튼튼하게 뿌리깊은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뿌리깊은 교육이란 행복한 인성을 이뤄가는 과정이다.

행복한 인성이란 인간의 이성과 감성 그리고 영성으로 이뤄진 앎과 몸과 맘의 건강성이며, 나를 포함한 타인 그리고 공동체와 자연만물을 포함한 모든 존재와의 관계되는 사심없는 배려와 사랑, 즉 어질이라는 일관된 상태이다.

일관된 상태란 일이관지(一以貫之)의 자세로 하나로 일관되게 완성할 때까지 끈기있게 포기하지 않을 때 나타난다.

공자는 논어 이인편 里仁篇과 위령공편 衛靈公篇에서 하나로 꿰뚫어 가는 일이관지의 자세를 두 번이나 강조하였다.

인공지능 디지털 문명사회에서도 행복한 삶과 공존 상생하는 인류애를 회복하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일이관지의 교육혁명을 생각해 본다.

첫째, 인간의 어질이란 뿌리를 자각시켜 인류애로 성숙 발전시키는 존엄성 그리고 자존감 교육을 강화한다.

둘째, 인공지능으로부터 민주주의적 공동체를 품위있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타인과 더불어 사는 관계적 공감교육을 익히도록 한다.

셋째, 존재하는 생명환경에 대해 호기심(Curiosity)으로 시작하는 비판적 사고능력(Critical Thinking)으로 질문하며 소통(Communication), 창의력(Creativity), 협업(Collaboration)으로 공감하며 자발적으로 사람과 세상에 공헌(Contribution) 하는 실사구시적 창의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社說

전두환은 참회할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말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 북구 갑)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학살 책임자 전두환의 역사적 단죄, 국가장 배제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전직 대통령이었던 이유 하나만으로 수 십억원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로 치루는 국가장의 영예를 누리게 할 수는 없다"며 "사후 국가장이 처리된다면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정의를 어떻게 이야기해도 변명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두환 국가장 배제법'은 1년 이상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조 의원의 제21대 국회 1회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전두환(90)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이 불출석 상태로 열린 가운데 5·18 단체들은 "2심 재판도 1심 때처럼 지연되고 있다"며 "계속되는 거짓말과 왜곡으로 국민과 대한민국 사법부를 기망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5·18 영령과 그 유족,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어야 한다. 사죄하고 참회할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비판했다.

고령의 전두환은 여전히 재판 지연과 책임 떠넘기기 버티고 있다. 회고록 집필자라고 밝힌 민정기 전 공보비서관은 증인으로 나서 전씨가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무 신부에 대해 정확히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한 것 않았지만 회고록 초고와 조 신부에 대한 평소 발언, 생각을 토대로 기술했다는 취지의 억지주장을 펼쳤다. 앞서 법원은 변호인을 통해 방어권이 보장된 다며 선고기일 전까지 전씨 불출석을 허가한 바 있다.

지난 5월 항소심 시작 후 전두환은 줄곧 나타나지 않다가 불이익을 경고하자 지난 9일 법정에 출석했고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곧 퇴정했다. 이후 입원해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았다. 전두환이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해야 할 때인 것이다. 늦기 전에 무고한 희생자들 앞에 참회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 역사에 더 이상 오점을 남기지 말길 바란다. 재판부 역시도 전씨 상황을 감안해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야 하겠다.

국민지원금 신속하고 원활한 지급에 최선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1인당 25만원씩 지급 절차에 들어간다. 광주시의 경우 전체 인구 144만여명 중 86.8%인 125만여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요예산은 3천250억원 규모로 20%인 650억원은 지방비 부담이다. 광주시가 70% (455억원), 5개 자치구가 30% (195억원)를 분담해 준비를 마쳤다. 전남지역 지급 인원은 167만여명으로 추정된다.

국민지원금 신청은 오는 6일부터 온라인, 13일부터 오프라인으로 받으며 10월29일에 마감한다.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배달앱, 유희·사행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광주시·전남도 전역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을 비롯한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이다.

특히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 특별히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별도로 운영한다. 주민센터에 요청하면 직원

이 서비스 요청자 자택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한 후 재방문해 지급까지 완료하게 된다. 당국은 9개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면 신청일 다음날 신용·체크카드 충전이 이뤄지는 만큼 이를 권장하고 있다.

코로나19 제4차 유행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피로도가 커지고 있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폐업 위기로 내몰리는 현실이다. 이번 상생 지원금이 서민들의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당연히 최대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급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혹시나 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지도 살펴야 하고 적극적인 구제에도 나서야 한다. 주민센터에 한꺼번에 몰릴 경우 큰 혼잡이 우려됨에 따라 나름의 대책도 필요하다.

국민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12월31일까지 기한 내 사용해야 하며 사용되지 않는 금액은 회수된다. 철저한 준비와 집행을 통해 적기에 효과를 제할 수 있도록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의정칼럼



박종원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치유농업' 도시민에게 줄 수 있는 위로의 선물

기적으로 제공해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케어 파밍(care farming)' 혹은 '소셜 파밍(social farming)'이라 불리며 네덜란드와 프랑스에서 각각 1천200개가 넘는 다양한 케어팜이 국민의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는 지원 기관 형태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건강보완이나 요양보완 지원을 받는 곳이 있는가 하면 자선단체 지원을 받는 곳, 사회보장제도와 연계된 곳 등 다양하게 운영된다. 예컨대 네덜란드의 한 농장에서는 보혈과 연계되어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발달장애나 자폐아, 알코올 중독자, 치매 노인들을 대상으로 텃밭도 가꾸고 동물도 돌보고 치즈도 만들면서 심신을 치유하는 등 유럽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제공 측면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원예치유를 시작으로 1990년대부터 산림치유와 동물매개치유로 발전해 오면서 2013년 유럽 선진국의 치유농업 사례와 효과에 대한 분석을 계기로 치유농업이라는 용어가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 사례로 만성 대사성 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농장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작물을 돌보고 건강식도 직접 만들어 보고 산책도 하는 등 가벼

운 농장 활동을 한 결과 평균 인슐린 분비가 47% 늘어났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28% 감소했다. 또한 노인을 상대로 주말농장을 운영하며 축적한 결과 텃밭 가꾸기와 공동체 밥상 차리기 등 활동 덕분에 노인들의 우울감이 60% 줄어들고, 총 콜레스테롤이 5% 감소하는 등 치유농업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환자가 2017년 8천200명에서 2019년 1만5천명으로 2년 새 28% 증가했으며 여기에 코로나19이후 바깥 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면서 우울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가 26.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에 해당하는 심각한 문제와 더불어 다문화·탈북자 등 사회적 약자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빠른 고령화에 의한 치매환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2019년 기준 7만9천9백명에 달하는 치매환자는 2040년이 되면 그 수가 200만명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라고 한다. 이처럼 치유를 필요로 하는 사람 숫자가 말해주고 잇듯이 과거 어느 때보다 위로가 필요한 시대다. 지친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었지만 치유농업이라면 좋은 해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행인건 지난 3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예산과 인력이 적극적으로 투입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속에 우리 전남도에서도 도내 다양하고 풍부한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하여 치유농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월 '전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전남형 치유농업 모델을 정립해 도시민에게는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는 것은 물론 농업인들에게는 농업의 새로운 가치와 가능성을 발견하여 농업·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게 되었다.

치유농업은 단순한 관광산업과는 다르다. 한번 보고 떠나서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머물며 몸과 마음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 치유농업이다. 어느 치유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의 이야기이다. 어느 한 농숙자분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강사들과 눈도 못 마주칠 정도로 자존감이 낮아져있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어려워했다고 한다. 하지만 매주 꾸준히 방문하여 텃밭의 농작물을 돌보며 '나도 도움만 받는 존재가 아니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말하며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당신에게 위로는 어떤 것인가? 요즘처럼 위로가 필요할 때 전남의 농업에서 치유를 받아 보는 건 어떨까?

현장칼럼



박광운  
담양119안전센터장

우리집 안전지킴이 주택용 소방시설

이를 흡입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유독가스가 공장이나 위험물 제조소 등의 화재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일상생활의 물건에서도 연소 시 상당량 배출된다는 것이다. 유독가스의 독성은 매우 강해 짧은 시간 내에 사람의 의식을 잃게 하고 동시에 사망까지 이르게 한다. 또한 연기와 유독가스가 위험한 이유는 연기 때문에 눈을 뜨기 어려워 시야 확보가 안돼 신속한 대피를 어렵게 한다.

그렇다면 주택 화재 예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주택 화재 예방의 가장 쉬운 길이 있다.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본적인 소방시설로 소화기와 단독경보

형 감지기를 의미한다.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소방차 1대 이상의 역할을 하는 소중한 소방 시설로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사실을 연소 시 상당량 배출된다는 것이다. 유독가스의 독성은 매우 강해 짧은 시간 내에 사람의 의식을 잃게 하고 동시에 사망까지 이르게 한다. 또한 연기와 유독가스가 위험한 이유는 연기 때문에 눈을 뜨기 어려워 시야 확보가 안돼 신속한 대피를 어렵게 한다.

그렇다면 주택 화재 예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주택 화재 예방의 가장 쉬운 길이 있다.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본적인 소방시설로 소화기와 단독경보

알리기 때문에 화재 초기 대응에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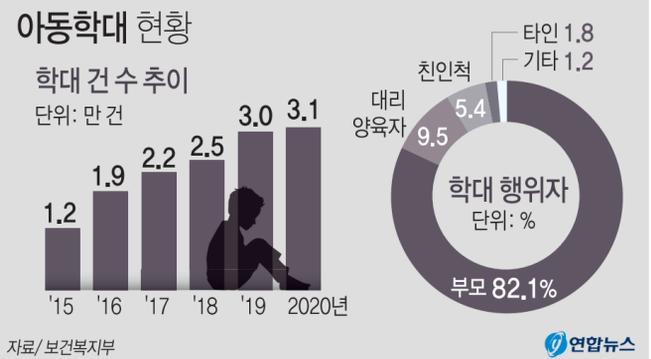
주택용 소방시설은 인터넷, 대형마트 등에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면 되고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방마다 설치하면 된다. 설치도 어렵지 않다. 감지기는 천장에 나사만 박으면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다. 우리 집의 안전지킴이, 주택용 소방시설을 하루 빨리 설치해 집안 곳곳의 보이지 않는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란다.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미리 준비한다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가정마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 당부드린다.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픽 뉴스

아동학대 가해자 82%가 부모...피해아동 43명 사망



지난해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8명은 부모였으며 아동 43명이 학대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20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작년에 아동학대로 최종 판정을 받은 사례는 총 3만905건이었다. 아동학대 피해 건수는 2015년 1만1천715건에서 2017년 2만2천367건, 2019년 3만45건으로 계속 늘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지난해 4만2천251건이었다. 신고 건수 역시 2015년 1만9천214건, 2017년 3만4천367건, 2019년 4만1천389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2만5천380건으로 전체의 82.1%를 차지했다. 또 대리양육자 2천930건(9.5%), 친인척 1천661건(5.4%), 타인 565건(1.8%), 기타 369건(1.2%) 등이었다.

학대 유형은 여러 학대 유형이 중복해 나타난 경우가 1만4천476건으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했다. 지난해 학대로 숨진 아동은 43명이었다. 아동학대 피해가 늘면서 학대 사망자도 2015년 16명, 2017년 38명, 2019년 42명으로 많아졌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8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지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광고국 650-2072	광국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사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0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부 650-2009	기획사업국 650-2079	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광주가10(日)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